

# 한국전쟁 이후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와 구술사 방법론\*

위경혜\*\*

## <차례>

1. 들어가며
2. 극장 문화의 역사(성) 연구 문제의식
  - 2.1. 극장 문화의 역사(성) 연구의 주요 개념어
  - 2.2. 극장 문화의 역사(성) 연구 대상
3. 극장 문화의 역사(성) 연구 방법론으로서 구술사
  - 3.1. 극장 문화의 역사(성) 연구 방법론으로서 구술사 의의
  - 3.2. 극장 문화 역사(성) 연구와 구술사 방법론 쟁점
4. 구술사 방법론을 통한 극장 문화의 역사(성) 연구 성과와 과제
  - 4.1. 구술사 방법론을 통한 극장 문화의 역사(성) 연구 성과
  - 4.2. 구술사 방법론을 통한 극장 문화의 역사(성) 연구 과제
5. 결론을 대신하며

##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전쟁 이후 '지방의 극장 문화 연구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구술사(oral history)의 유용성과 의의를 검토한 것이다. 극장 문화는 영화 상영과 관람 행위를 수행하는 극장이라는 장소를 둘러싼 여러 문화적 실천을 말한다. 그동안 한국영화사는 영화 제작과 작품의 미학 분석에 집중하여 서술하면서 극장을 비롯한 영화 수용 문화에 대한 기록을 소홀히 다루었다. 이와 달리 시네마 역사(cinema history)는 관객을 역사 서술의 중심으로 설정하면서 영화와 관객이 만나는 극장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었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2013858) 논문의 완성을 위해 비평을 아끼지 않은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영화학 분야에서 극장 문화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시작되었으나, 이는 주로 서울을 연구 대상으로 삼거나 신문 기사와 같은 문헌을 통한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을 취하였다. 이에 비하여, 서울을 벗어나 일반적으로 '지방'으로 불리는 비(非)서울 지역에 대한 연구는 문헌 기록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방법론으로서 구술사를 통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극장 운영 관련자와 관객의 구술 증언(oral testimony)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구술사는 한국전쟁 경험에 따른 극장 문화의 복수성을 규명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관객이자 지역민의 영화 수용 문화의 다층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현 단계 구술사 방법론에 근거하여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를 연구할 때 여러 문제점을 마주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구자의 위치성(positionality)이라 할 것이다. 구술사는 구술자와 면담자/연구자의 공동 작업이라는 점에서 '누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문제는 구술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극장이라는 흥행 현장의 대부분 종사자들이 남성이라는 점에서 구술자와 면담자/연구자의 젠더(gender) 문제는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구술사는 기억 작업(memory work)이라는 점에서 '무엇을' 말하는가에 못지않게 '어떻게' 증언하는지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요한다. 지역 극장 문화사 연구를 위한 대안적인 역사쓰기를 위한 유효한 방법론으로서 구술사는 향후 발전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주제어 : 관객/지역민, 구술사, 극장 문화사, 시네마 역사, 지역사(성)

## 1. 들어가며

영화 역사는 텍스트(texts)로서 영화 미학의 역사와 문화적 제도(cultural institution)로서 영화 역사로 나뉜다. 각각 필름의 역사(film history)와 시네마의 역사(cinema history)로 명명되는<sup>1)</sup> 분류 방식은 제작과 유통에 그치지 않고 상영/관람 과정을 거쳐야 영화의 온전한 의미를 획득한다는 점에서 후자에 무게 중심을 둔다. 시네마 역사는 영화의 경제적, 산업적 그리고 제도적 역사를 규명하는 것이자 영화 관객(audiences)의 사회 문화사에 대한 탐구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시네마 역사는 관객을 영화 역사 서술의 중심으로 설정하면서 영화와 관객이 만나는 극장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

1) Richard Maltby, Melvyn Stokes, "Introduction", Richard Maltby, Melvyn Stokes and Robert C. Allen (Eds.), *Going to the Movies: Hollywood and the Social Experience of Cinema*, Exeter: Univ. of Exeter Press, 2007, pp. 1-22.

스럽게 이어진다.<sup>2)</sup>

한국에서 근대 극장에 관한 연구는 연극을 비롯한 극예술 분야에서 시작되었으며,<sup>3)</sup> 영화학 분야에서 극장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의 일이었다. 1970년대 서울의 극장 산업과 극장 문화에 대한 연구<sup>4)</sup> 필두로 2005년부터 서울을 벗어난 통칭 ‘지방’으로 불린 지역의 극장 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물들이 다수 등장하였다.<sup>5)</sup> 지역 연구를 통하여 극장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의식이 제출되는 가운데 일제강점기 조선인 극장 단성사에 대한 연구와<sup>6)</sup> 1950년대 서울의 극장에 집중한 연구들이 생산되었다.<sup>7)</sup> 또한 최근에 들어서 한국영상자료원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2) 이 글의 서론은 다음 논문의 문제의식을 확장한 것이다. 위경혜, 「1950년대 중반~1960년대 지방의 영화 상영과 ‘극장가가’ 경험」,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1면.

3) 일제강점기 조선인 극장을 비롯해 해방 이후 서울 소재의 연극 공연장에 대하여 기술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유민영, 『한국 근대극장 변천사』, 태학사, 1998.

4) 이길성·이호걸·이우석, 「1970년대 서울의 극장산업 및 극장문화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4.

5) 위경혜, 『광주의 극장 문화사』, 도서출판다지리, 2005; 위경혜, 『호남의 극장문화사: 영화 수용의 지역성』, 다할미디어, 2007; 위경혜, 「한국전쟁이후 1960년대 비도시 지역 순회 영화 상영: 국민국가 형성과 영화산업의 발전」,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1권 제2호, 역사문화학회, 2008, 267-305면; 위경혜, 「1950년대 중반~1960년대 지방의 영화 상영과 ‘극장가가’ 경험」,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위경혜, 「한국전쟁 이후 극장 문화 로컬리티(locality): 강원도 도시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77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12, 543-581면; 위경혜, 「군민(軍民) 협동과 영화 상영: 강원도 ‘군인극장」, 『대중서사연구』 제20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4, 239-272면; 위경혜, 「인천의 극장 문화: 한국전쟁이후~196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53집, 한국극예술학회, 2016, 45-88면; 위경혜, 「극장 문화의 지역성—한국전쟁 이후 대전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6권 제2호,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91-124면; 위경혜, 「1960년대 ‘지방’ 상설극장 개관의 역사성」,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20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17, 161-192면 등이다. 이들 연구의 대상 시기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1960년대 전반에 집중한다.

6) 이순진, 『조선인 극장 단성사 1907-1939』, 한국영상자료원, 2011.

7) 1950년대 서울의 극장 공간에 관한 연구는 최근의 일이다. 즉, 이지윤, 「1950년대 극장 공간 재편에 대한 일고찰: 극장 지정좌석제 논란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2권 제2호, 대중서사학회, 2016, 203-231면; 이지윤, 「자본주의적 선진 문화공간으로서의 1950년대 극장 연구: 1950년대 중후반 서울 개봉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등이다.

서울을 포함한 ‘지방’ 극장의 사회문화사에 대한 연구 성과물을 제출하였다.<sup>8)</sup> 참고로 2004년부터 한국영상자료원이 실시한 구술 채록 역시 극장을 포함하지만 채록 분량에 비하여 이를 활용한 연구 결과물의 성과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sup>9)</sup>

흥미로운 사실은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에 관한 연구가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되었고, 서울보다는 비(非)서울 지역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제출된 점이다. 여타 연구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지역 극장 문화에 관심을 보인 것은 제작과 영화 텍스트를 중심으로 설정한 기존의 한국영화사 서술 방식에서 일차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69년 발간된 『한국영화전사』를 검토한 이순진의 연구는 시사적이다. 그에 따르면, 현장 영화인의 전언(傳言)과 구술을 바탕으로 기술된 『한국영화전사』는 민족 영화사를 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목소리들 가운데 특정한 목소리의 특권화”가 작동한 결과이다.<sup>10)</sup> 즉, 『한국영화전사』는 “조선 영화 구조를 결정지은 기술과 자본 그리고 제도 문제를 비가시화”하고 “조선 영화의 문화적 독자성을 유지한 영화인 개인의 의지와 능력을 부각”시켰으며, 무엇보다도 “제작의 역사로서 영화사를 구성한 경향”을 드러냈다. 따라서 민족 영화사는 영화 시장의 종속성의 지표로 기능한 ‘극장을 포함한 수용의 문화’를 배제한 것이다.<sup>11)</sup>

8) 한국영상자료원 엮음, 『은막의 사회문화사』, 한국영상자료원, 2017.

9) 한국영상자료원의 극장 관련 구술 채록은 다음을 참고 한국영화사연구소, 『한국영화를 말한다. 한국영화의 르네상스 3』, 한국영상자료원, 2007; 주제사채록연구팀, 「2010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주제사> 1960~1970년대 영화관: 서울 개봉관을 중심으로」, 한국영상자료원, 2010; 주제사채록연구팀, 「2011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주제사> 대구 경북 지역 영화사」, 한국영상자료원, 2011; 한국영상자료원이 실시한 구술 채록을 바탕으로 제출된 소논문은 다음 2편으로 확인된다. 즉, 송영애, 「1960~70년대 서울개봉관 지형과 변화: 외화관 단성사를 중심으로」, 한국영상자료원 엮음, 『은막의 사회문화사』, 한국영상자료원, 2017, 211-255면. 안재석, 「대구 경북 지역의 영화 배급사 연구」, 『현대영화연구』, 현대영화연구소, 2017, 67-94면.

10) 이순진, 「영화사 서술과 구술사방법론」,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한국 문화문학과 구술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84면.

11) 이순진, 위의 글, 위의 책, 89-91면.

민족주의에 의거한 영화사 구성이 영화 상영과 관객의 수용 측면을 배제한다는 주장은 일면 설득력이 충분하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지방 극장 문화에 관심을 보인 것은 1998년 멀티플렉스(multiplex) 등장에 따른 단관(單館) 극장의 소멸과 극장의 위상 변화에서 주로 기인한다. 즉, 멀티플렉스 개관에 따른 단관 극장의 휴폐관은 오락과 연예의 제공 장소를 넘어서 지역에서 차지한 단관 극장의 사회적인 역할과 기능을 무화시키는 일이었다. 또한 원도심의 위축과 함께 진행된 극장 건물의 소멸은 특정한 장소를 둘러싸고 형성된 기억과 문화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영화 상영과 관람 그리고 극장 공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 중반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와 같이 서울을 벗어난 지역으로의 문화 권력 분산이 극장 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영화제의 활성화를 통한 영화 문화 향유는 1960년대 초반 영화법 제정 이후 지속된 제작 중심의 서울과 상영/관람 중심의 비(非)서울/비도시 구도를 환기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관객 대부분이 영화를 처음으로 접한 장소가 제작이 아니라 상영과 관람 현장이라는 사실과 함께 지역 극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 2.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 문제의식

### 2.1.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의 주요 개념어

극장은 대중문화의 현시와 집적이 이뤄지는 곳이자 그곳을 둘러싸고 일상을 영위하는 관객의 생활세계 경험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공간이다. 공간은 그곳을 점유하는 인간과 사물 그리고 상징에 의해 규정되면서<sup>12)</sup> 유무

12) 가토 미키로우, 김승구 옮김, 『영화관과 관객의 문화사』, 소명출판, 2017, 212면.

형의 실체를 갖는 장소로 변한다. 장소는 특정의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간 활동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하여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형성되는 개념이다. 나아가 특정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사회 구성원의 생활세계는 하나의 장소에 고유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장소성(place-ness)을 형성한다.<sup>13)</sup> 따라서 차이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장소성의 개념은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다.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에 있어서 주요한 또 다른 개념어는 지역과 지방의 차이 또는 혼용이다. 역사문화학회에 따르면, 지방은 단위적인 측면에서 국가에 귀속되지만 동시에 일정한 지역을 지칭하면서 서울로 상징된 중앙의 종속에서 벗어난다. 게다가 지방은 목적에 따라서 단위가 달리 구성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지방의 역사를 탐구하는 것은 전체 문화를 구성하는 개체로서 다양성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전체와의 관계적 관점에서 그것의 의의를 지닌다.<sup>14)</sup> 하지만 한국사회가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지배 질서 체제를 지속한 까닭에 지방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오해, 즉 서울과 대당관계이자, 그 위계적인 질서 범주에 속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극장 문화 연구는 서울을 벗어난 지역을 칭할 때 따옴표를 사용하여 ‘지방으로 표기하는 한편, 지역(regions)의 공간과 장소의 특징적 성격을 지칭하여 지역성을 탐구한다.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에 대한 연구는 영화 관객이자 지역민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관객은 단일한 통일체가 아니며 도시와 비도시, 계층과 학력, 젠더(gender) 그리고 연령 등 여러 요인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인 행위와 실천(practices)을 벌이는 주체이다. 따라서 극장 문화 연구는 극장 공간을 비롯한 해당 도시/비도시의 형성과 변천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적 사

13) 위경혜, 「식민지 개항도시 극장의 장소성 -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72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10, 37면. 이에 대한 논의들은 다음을 참고 같은 글, 각주 1번.

14) 역사문화학회 엮음, 『지방사연구입문』, 민속원, 2008, 11-26면.

건(events)을 경험한 지역민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작업이다. 즉, 극장 문화 연구는 특정한 시기 관객/지역민이 영화 텍스트와 극장이라는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상황적 조건을 문제시하여 그 역사성(historicity)을 규명하는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는 관객/지역민의 미시적인 일상생활을 관찰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법론으로서 구술사(oral history)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 2.2.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 대상

지역의 극장 문화 연구는 관객/지역민의 일상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영화 상영과 관람 행위를 둘러싼 여러 문화적 실천 양상을 탐구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이후, 약칭 ‘전후’)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는 영화 산업의 발전을 비롯해 문화냉전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역사학은 1945년 해방을 새로운 국면으로 설정하지만, 영화학에서 극장 연구는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을 역사적 분기점으로 설정한다. 일제의 적산 극장 처리를 주요 의제로 삼았던 해방 정국과 재화 생산의 물리적 기반을 파괴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극장은 전후 ‘재건’의 지표로 부상하였고, 1950년대 중후반 근대화 논리와 함께 서울을 비롯해 지역 각지에서 다수의 신설 극장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sup>15)</sup>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지역의 극장 문화 연구의 의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전후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는 영화 상영 목적과 환경에 따라서 극장에 대한 상이한 평가와 해석을 부여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후 시기는 가설극장이 일시적으로 번성했다가 사라지고 그것을 대체한 상설극장이 대거 등장하였다. 또한 미공보원(USIS, Korea)의 지원으로 문화

15) 이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 이지윤, 「자본주의적 선진 문화공간으로서의 1950년대 극장 연구: 1950년대 중후반 서울 개봉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원이 증가하면서 영화 상영의 제도화가 이뤄졌다. 따라서 공적 기록에서 배제된 순업(巡業)과 이동영사 등을 포괄하는 영화 상영과 관람의 다양성을 포착해야 한다. 특히 기존 문헌 자료는 제한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단편적인 통계 자료 수록에 그치고 있어서 영화 문화 향유 주체로서 관객에 대한 관점이 부재하다. 즉, 전후 지역 극장 정보를 알 수 있는 현존 자료는 『한국연예대감』(김기제 편, 1962), 『한국영화전사』(이영일, 1969),<sup>16)</sup> 『1970 영화연예연감』(국제영화사, 1969), 『한국영화자료편람: 초창기~1976년』(영화진흥공사, 1977), 그리고 1978년부터 영화진흥공사가 발간한 『한국영화연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자료는 영화를 비롯한 공연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영화 수출을 위한 관련 기관 설립과 함께 발간된 특징을 보인다. 영화법이 제정된 이후인 1962년에 발간된 『한국연예대감』은 극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정석수 그리고 영사시설(영사기 종류)을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이는 1950년대 초중반부터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 대도시에서 증가한 신설 극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의 재정 확보의 일환으로 정석 숫자까지 표기한 것이다.<sup>17)</sup> 1978년부터 발간한 영화진흥공사의 연감(年鑑) 역시 수출을 통한 산업화를 지향한 통계적 수치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들 보고서 또는 정부 기관의 자료는 극장의 정의를 상설적인 상업 극장으로 제한하면서 다양한 목적과 형식으로 수행된 영화 상영에 대한 기록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비서울과 비도시 상업 극장의 설립 시점과 소유자/운영자의 사회적 이력을 검토하여 지역 흥행 자본의 성격과 극장 설립을 주도한 흥행/문화 관련 집단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전후 지역 문화 엘리트(local culture elites)의 성격과 영화 상영 주도 세력/집단의 인적 네트워크

16) 『한국영화전사』 초판본은 1969년 이영일이 작성하여 한국영화인협회의 이름으로 발간되었으며, 2004년 도서출판사 소도에서 개정증보판을 발간하였다.

17) 극장에서의 재정 자원 확보 관련 논의는 다음을 참고. 이지윤, 「1950년대 극장 공간 재편에 대한 일고찰 - 극장 지정좌석제 논란을 중심으로」, 대중서사학회, 『대중서사연구』 제22권 제2호, 2016, 203-231면.

(networking)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이를 통하여 전후 영화와 극장의 사회적 위상을 파악하고, 극장을 경유하여 관객/지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도시와 지역의 역사를 새롭게 조망한다. 나아가 극장 문화 연구는 영화를 보러가는 행위를 넘어서 ‘극장을 구경하라’ 가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극장을 둘러싼 지역민의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이러한 이유로 극장이 위치한 주변의 환경—철도역, 터미널, 시장 그리고 유곽 등—을 극장의 장소성의 맥락에서 세심히 관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는 지역에 대한 차이를 규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영화 및 극장의 문화 생산과 향유의 개별성과 보편성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개별 극장의 프로그램과 관객이 선호하는 대중문화 장르에 대한 검토를 넘어서 전후 냉전체제 형성으로 인한 도시의 변화와 성격의 재규정을 비롯한 도심과 부도심 등 공간적 특성에 따라 달리 형성된 영화의 사회적 위상과 극장 문화에 대한 고찰로 이어져야 한다.

### 3.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 방법론으로서 구술사

#### 3.1.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 방법론으로서 구술사 의의

구술사 정의는 연구 출발선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질문이다.<sup>18)</sup> 구술사를 정의하는 방식과 실행하는 양식이 연구자 소속 ‘분과 학문과 패러다임 그리고 인식론의 차이’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이다.<sup>19)</sup> 이에 2010

18) 구술사의 정의와 연구 대상 그리고 방법론적 쟁점에 대한 논의는 이 글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구술사의 여러 쟁점을 기술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 윤택림 편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아르케, 2010; 윤택림·함한희,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2006.

년 한국구술사학회의 『구술사연구』 창간호에서 함한희가 제출한 방법론적 성찰은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구술사는 ‘민족지적 구술사(Ethnographic Oral-history) 쓰기, 구술과 다른 매체/자료들과의 교차 점검(cross check) 그리고 복합학문으로의 가능성 타진을 전망하기 때문이다.<sup>20)</sup>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가 물리적 공간으로서 극장의 존재를 확인하고 일상성에 주목하여 역사를 재구성하면서 영화사와 지역/도시사 그리고 건축사와 같은 분과 학문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함한희의 성찰은 고려할 가치가 충분하다.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서술의 의의는 무엇이며 연구 방법론으로서 구술사를 채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sup>21)</sup> 무엇보다도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은 기존의 서울 중심의 역사 쓰기로 인한 역사 인식의

- 
- 19) 이나영, 「과정으로서 구술사, 긴장과 도정의 여정」,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한국 문화문학과 구술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46면.
- 20) 함한희, 「구술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구술사연구』 창간호, 한국구술사학회, 2010, 7-47면.
- 21) 한국에서 연구 방법론으로서 구술사의 적용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 여러 분과 학문이 구술사 연구를 종합한 결과물을 제출하였다. 그것의 예로서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 문화문학과 구술사』를 들 수 있다. 이는 구술사를 바탕으로 수행한 문학과 사회학, 문화인류학 그리고 영화학 등의 연구 성과물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구술사 연구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접근한 김성수와 이나영의 글은 주목을 요한다. 김성수는 문헌 연구와 별도의 자료와 시각을 제공하여 문학사 재구성에 기여하는 구술사의 의의를 다뤘으며, 이나영은 구술사 연구에 있어서 페미니스트 위치성과 정치성에 관한 다층적인 인식론적 질문을 제기한다. 이나영의 글은 페미니즘 연구 방법론에 국한되지 않는 구술사의 정치적 급진성과 연구의 단계별 쟁점을 지적한 점에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준다. 이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한국 문화문학과 구술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한편 2017년에 이르러 구술사 연구는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도 참여하여 일상생활에 관한 주제까지 수행한 상황이다. 일상사를 다룬 최근의 연구로는 『구술사 연구: 이 시대 주변인들을 기록하다』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선문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의 공동 참여로 이뤄졌다. 각 구술자별 구술 분량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동네 헤어스타일 변천사’를 비롯해 ‘과외 선생’ ‘관광버스 운전사’ 그리고 ‘7080 세대의 무전여행기’까지 개인사와 미시사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동네와 마을 이야기에 집중한 이들 결과물은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관된다. 이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 유춘동 외 15명, 『구술사 연구: 이 시대 주변인들을 기록하다』, 청송미디어, 2017.

일반화 오류를 극복하려는 데 있다. 이는 영화를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경험이 서울을—또는 서울 도심을—벗어난 지역과 다를 수 있다는 전제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를 살피는 일은 관객/지역민의 영화 관람(film viewing)을 비롯한 ‘극장가기(cinema-going)’ 경험이 서울의 그것으로 보편화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1950년대 후반부터 전국을 6대 상권으로 분할하여 필름을 간접적으로 배급한 방식은 극장 등급(개봉관과 재개봉관, 그리고 가설극장 등)과 지역(도시와 비도시 등)에 따라서 필름의 상태(영화 상영 시간과 분량 등)가 달라진 것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한다.

여타 분과 학문이 지역사 연구를 수행하면서 마주한 난점인 사료의 부재 또는 부족의 문제는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때 구술 자료는<sup>22)</sup> 문헌 자료의 절대적인 부재와 잔존 기록의 불완전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면서, 동시에 공식적인 기록이 배제한 영화 상영과 관람 경험의 다양한 문화적 실천을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 무엇보다도 구술사 방법론은 역사적 사실의 확보를 넘어서 사적 존재이자 공적 존재로서 구술자의 위상 즉, 문화 생산과 향유의 주체로서 관객/지역민 정체성의 재탄생을 동반한다.<sup>23)</sup>

구술 자료는 구술성(orality), 주관성(subjectivity)과 개인성, 서술성(narrativity) 그리고 공동 작업의 성격을 지닌다. 이들 가운데 주관성과 공동 작업은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를 파악하는데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sup>24)</sup> 즉 구술사는 ‘구술자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 객관적인 구조와 어떻게 상호 연

22) 구술 자료는 구전(oral tradition)과 구술 증언(oral testimony) 그리고 구술 생애사(oral life history)로 분류할 수 있지만, 과거의 특정한 사건이나 경험이 개인의 생애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술 증언과 구술 생애사는 혼재한다. 윤택림·함한희,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2006, 57-59면.

23) 윤택림·함한희, 위의 책, 181-185면.

24) 주관성은 구술 자료의 사실성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사실적 진실(factual truth)을 기록한 문헌 자료 역시 서사적 진실(narrative truth)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사실 여부에 관한 논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윤택림·함한희, 위의 책, 50-57면.

관되는지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술 자료의 주관성을 해석하는 일이다. 구술사에 기반을 둔 역사쓰기가 문헌 자료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신문에 게재된 영화 광고 문구 및 기사를 비롯하여 지역 문화원 또는 향토사료 연구소 발간 문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때 구술 증언과 문헌 자료의 교차 점검은 역사적 사실을 특정화(特定化)하는 작업이 아니다. 구술과 문헌의 불일치 또는 차이의 발생을 확인하는 일은 복수(複數)의 목소리를 담은 대안적인 역사 서술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구술사 방법론에 의거한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는 영화 상영과 ‘극장가기’ 경험에 대하여 해석한 사건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수용 이론(reception studies)과 맞닿아 있다.<sup>25)</sup>

구술은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contexts)에서 특수한 방식으로 기억을 생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구술자들이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 만큼, ‘어떻게’ 이야기 하는가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sup>26)</sup> 이는 구술사가 구술자와 면담자/연구자의 상호 작용에 근거한 ‘공동의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흥행 사업의 특성인 투기성을 비롯해 비서울/비도시로 갈수록 긴밀히 형성된 인적인 연결망(network)으로 인하여 영화 상영과 극장 운영에 관련된 사실을 공개화 하지 않은/못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구술사는 구술자 증언의 발화 사이에 존재한 비언어적 요소—몸짓, 눈짓, 말더듬 또는 침묵 등—를 통하여 단일한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요컨대, 연구 방법론으로서 구술사에 근거한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의 서술은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당대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 역시 구술 자료를 분류하여 해석하고 텍스트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택과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

25) 이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 Janet Staiger, *Interpreting Film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26) Annette Kuhn, *An Everyday Magic: Cinema and Cultural Memory*, London: I.B. Tauris, 2002, p. 9.

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역의 극장 문화사 연구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발굴과 복원에 그치지 않고 문화의 생산과 향유 주체의 일상성에 대한 물음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 3.2. 극장 문화 지역사(성) 연구와 구술사 방법론 쟁점

구술 행위는 구술자와 면담자/연구자라는 쌍방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자기 진술 내지 표현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극장 관련 구술 증언을 채록하기 위하여 ‘누가’ ‘누구를’ 만나는 일은 중요하다. 이나영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구술의 속성은 ‘조우하기(encountering)’로 규정되는데,<sup>27)</sup> 이때 구술자와 연구자의 위치성(positionality) 문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구술사는 공동 작업이라는 점에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관계에 따라서 구술 내용과 태도의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구술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과거의 사실과 기억을 소환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술 당시 구술자와 면담자/연구자의 사회적 위치-젠더(gender), 세대, 계층 그리고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서 구술 내용의 제약과 자기 검열을 수행하는 일이 발생한다. 또한 구술자와 면담자/연구자의 정체성의 동요 역시 발생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지역 극장의 운영과 상영과 관련된 구술 증언을 채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으로 젠더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흥행업으로서 극장 운영에 종사한 절대 다수는 남성이라는 사실 특히 가부장적 질서의 내면화가 철저한 구술자의 경우 구술자와 (여성)면담자 사이에 예기치 않은 정체성의 동요 발생 가능성이 높다. 구술 채록 과정에서의 젠더의 문제는 관객성(audience-ship)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노인 여성 관객들이 공적인 집단을 형성하고 여가 생활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서울과 같은 대

27) 이나영, 앞의 글, 55-59면.

도시와 달리,<sup>28)</sup> 긴밀한 인적 관계망을 형성한 비도시 지역의 구술 증언 채록은 개인과 집단별로 편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섹슈얼리티(sexuality)와 연관된 영화 관람 경험에 대한 구술 채록은 구술 현장을 통제 하더라도 증언 수집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sup>29)</sup>

지역 극장 문화를 증언할 수 있는 구술자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극장 설립/운영자와 영화 상영 현장의 종사자 즉, 영사기사, 필름 배급 담당자, 관객 관리자, 선전 담당자 그리고 간판장이 등이다. 흥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순업 종사자들도 이에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흥행이 아니라 계몽을 표방한 기관 또는 사회 문화 단체, 즉 전후 미공보원과 문화원의 이동영사 담당자 그리고 지역 행정 기관의 공보 담당 공무원 등이다. 흥미로운 점은 흥행업으로서 영화 상영에 종사한 사람들의 구술 증언 태도가 극장 운영자와 종사자 사이에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극장 운영자는 지정좌석제 준수 여부와 이와 관련된 세금 문제 그리고 필름 배급을 둘러싼 개봉관 간 갈등을 민감하게 인식한다. 이에 비하여 영화 상영 현장 종사자의 구술 증언 채록의 경우, 구술자와 면담자/연구자 사이의 사회적 지위-학력과 현재 직업 그리고 소속 등에 따른 선입견 또는 편견이 작용할 수 있다. 전후 극장 현장 종사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제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하여 흥행업에 입문한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파악은 가능한 다양한 영역의 극장 관련 종사자의 증언을 채록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전후 지역의 극장 문화사는 극장 관주/운영자보다는 영사기사의 구술을 채록한 경우가 더욱 많아 보인다.<sup>30)</sup> 이는 단관 극장의 현재적인 운명과 연관되는데, 단관

28) 변재란, 「한국 영화사에서 여성 관객의 영화 관람 경험 연구: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29) 전후 월남민 마을이 형성된 강원도 속초시 '아바이마을' 인근 노인정의 여성 관객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집단으로서 노인 여성을 마주했을 때와 개별 구술자로서 그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시도한 경우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극장이 휴폐업을 거쳐 소멸하면서 관주 역시 자신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영사기사는 영사기사협회와 같은 조직을 비롯하여 흥행과 계몽 양측으로부터 인지도가 높기에 상대적으로 그들의 소재 파악이 용이한 편이다. 하지만 단관 극장 시기 서울에서의 영화 제작비의 주요 공급처가 대부분 ‘지방’ 극장이라는 점에서 지역 극장 관주/운영자의 구술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답은 서울의 주요 영화 제작사 관련자의 구술 증언 채록이라는 역발상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찾을 수 있다.

## 4. 구술사 방법론을 통한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 성과와 과제

### 4.1. 구술사 방법론을 통한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 성과

구술사 방법론을 통한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의 성과는 무엇일까? 다시 말하여, 구술사 방법론은 문헌 자료와 텍스트 분석에 집중한 여타의 연구 방법론과 차이를 비롯해 고유의 특징점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950년대 중후반 ‘선진 문화 공간’으로서 서울의 개봉관을 해석한 이지윤의 연구와 1960년대와 1970년대 서울 개봉관의 지형 변화에 관하여

30) 이에 대하여 위경혜의 각 논문을 참고. 이에 비하여, 송영애의 연구는 극장의 선전부장과 경리부장의 구술 증언에 의존하고 안재석은 배급 관련 종사자, 그리고 이순진은 영화감독과 배우 등을 포함한 구술 증언에 기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 송영애, 「1960~70년대 서울개봉관 지형과 변화: 외화관 단성사를 중심으로」, 한국영상자료원 엮음, 『은막의 사회문화사』, 한국영상자료원, 2017, 211-255면; 안재석, 「대구 경북 지역의 영화 배급사 연구」, 『현대영화연구』, 현대영화연구소, 2017, 67-94면; 이순진, 「중심의 해체와 복원: 1950년대 대구지역 영화사를 중심으로」, 『2011년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연구소 심포지엄 “한국영화사연구와 로컬리티” 자료집』, 2011, 25-46면.

단성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송영애의 연구 역시 일부 구술사 방법론에 의거하여 서울 ‘지역’을 연구한 유의미한 성과물임에 틀림없다.<sup>31)</sup> 하지만 전국적인 맥락에서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를 살펴보면, 전후 주요 도시 중심가 극장에 국한한 연구는 전후 극장 문화의 지형도를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비서울 지역의 극장에 집중한 위경혜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후 극장 문화 연구는 냉전체제 형성과 분단의 고착화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 따른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구술사 방법론에 기대어 수행한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의 성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는 유형의 상설극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뤄진 영화 상영과 관람의 역사를 발굴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는 영화 연감이나 정부 기관 발행 문헌 자료에서 배제된 가설극장과 순업 그리고 부분적인 수치로서만 기록된 강원도 군(郡) 지역의 ‘문화관’이라는 명칭의 극장들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전후 1950년대 전성기를 맞이한 가설극장의 존재와<sup>32)</sup> 1960년대 중후반까지도 비도시 지역의 주된 영화 소비 방식이었던 순업 활동에 대한 발굴은 주목된다.<sup>33)</sup> 또한 강원도 군단(軍團) 소재 군인극장의 사례와 같이, 특정한 시기 특정 지역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극장에 대한 조명은 구술사 방법론의 특징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군인극장에 대한 정의를 둘러싸고 군인극장 설립을 주관한 국방부와 육군본부 정훈공보실의 기록, 그리고 군인극장 종사자의 구술은 각각 ‘오락시설’ ‘북괴에 대한 증오심 고취’ 그리고 ‘군단

31) 이지윤, 「자본주의적 선진 문화공간으로서의 1950년대 극장 연구: 1950년대 중후반 서울 개봉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송영애, 「1960~70년대 서울개봉관 지형과 변화: 외화관 단성사를 중심으로」, 한국영상자료원 엮음, 『은막의 사회문화사』, 한국영상자료원, 2017, 211-255면.

32) 이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 위경혜, 「인천의 극장 문화 - 한국전쟁이후~1960년대를 중심으로 -」, 『한국극예술연구』 53집, 한국극예술학회, 2016, 44-88면.

33) 위경혜, 「1950년대 ‘굿쟁이’ 이동영사 - 유랑예인 연행과 시각적 근대의 매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5권 제2호, 역사문화학회, 2012, 197-228면.

수익사업이라는 이견으로 엇갈렸기 때문이다.<sup>34)</sup> 다시 말하여, 구술사를 통한 지역 극장 문화의 역사쓰기는 극장 유형과 성격의 외연을 확장하는 동시에 영화 상영/관람 문화의 비도시성의 동시성을 확인시켰다. 이러한 성과는 비도시 지역의 영화사 복원을 비롯해 복수의 역사쓰기를 통하여 중심의 논리를 해체하는 역사 인식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구술사 방법론은 전후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진 영화 상영이 문화냉전 체제 형성과 연관된 것임을 규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비도시의 지역 문화원 원장을 비롯한 이동영사 활동가들의 구술 증언에서 확인되는 바,<sup>35)</sup> 전후 이동영사는 행정상 최하위 단위까지 영화 상영의 전국화를 달성하는 매체로 기능하였다. 또한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중반까지 영화 상영의 전국화를 위해 행해진 일련의 제도적 장치들 즉, 비도시 지역의 공회당(公會堂) 및 사설 문화원과 같은 공공성을 내세운 기관의 상업 극장으로의 전환, 비도시 지역 극장 관주와 문화원 그리고 미공보원의 연결망 형성과 상호 공조,<sup>36)</sup> 16mm 필름 상영 영사기사 면허증 소지 예외 조항을 포함한 1961년의 공연법<sup>37)</sup> 그리고 전후 수복(收復) 지역에 집

34) 위경혜, 「군민(軍民) 협동과 영화 상영: 강원도 ‘군인극장」, 『대중서사연구』 제20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4, 239-272면.

35) 이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 이기화 구술, 위경혜 면담, 「한국전쟁이후 1960년대 이동영사 활동 증언 자료 수집: 전라남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2009년도 구술자료수집사업 OH\_09\_019\_이기화\_11』, 국사편찬위원회, 2009, 1-70; 서아귀 구술, 위경혜 면담, 「한국전쟁이후 1960년대 이동영사 활동 증언 자료 수집: 전라남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2009년도 구술자료수집사업 OH\_09\_019\_서아귀\_11』, 국사편찬위원회, 2009, 1-71.

36) 이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 위경혜, 「극장 문화의 지역성—한국전쟁 이후 대전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6권 제2호,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91-124면; 위경혜, 「문화냉전의 지역성: 미공보원과 문화원」, 『2017년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한국영상자료원 <아시아재단과 한국의 냉전문화> 일반공동연구팀 심포지엄 “냉전 시대 ‘자유아시아의 문화/미디어 네트워크’ 자료집」, 2017, 175-193면.

37)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02호로 제정된 공연법 제22조 2(영사기사)에 따르면, 문화공보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영사기사가 영화를 상영해야 하지만 영화 규격이 16mm 이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영화사, 『1970 영화연예연감』, 국제영화사, 1969, 220면; 영사기사 면허 시험은 1964년 5월 공연법에 의거하여 문화공보부에서 시행되었다. 사단법인 한국영사기사협회, 「영사기술교서 보수교육과목」, 사단법인 한국영

중한 군인극장 설립 등은 냉전의 문화 전선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와 영화산업 그리고 지역 문화 엘리트 간 협동의 결과였다.

셋째, 구술사 방법론은 전후 시기와 지역별로 극장 설립자를 비롯한 영화 상영 주체의 다층성과 필름 유통의 다채널 그리고 관람 방식의 다양성 규명에 기여하였다. 예를 들어, 전후 1950년대 전반에 걸쳐 가설극장의 영화 상영을 주도한 집단으로서 상이군인과 우익 민족주의 청년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필름 유통 채널로서의 군사 전략상 주요 도시에 주둔한 미군부대 등을 들 수 있다.<sup>38)</sup> 또한 강원도 춘천과 강릉의 비교 연구에서 확인되는 바, 한국전쟁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의 비균질적인 전개에 따라서 극장 운영에 참여한 지역 문화 엘리트 구성이 달라진 점도 주목된다.<sup>39)</sup> 더불어 군(郡) 단위의 지역 발전을 지향하는 청년 단체와 흥행을 쫓는 순업 단체 사이에서 벌어진 영화 상영을 둘러싼 갈등과 긴장은 전후 비도시 지역에서 차지한 영화의 위상을 보여준다.<sup>40)</sup>

넷째, 구술사 방법론은 관객/지역민의 영화 및 극장에 대한 의미 부여와 해석의 다층적인 양상을 제시하면서 제작 중심의 기존 영화사 서술 방식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1960년대까지 호남 지역 비도시에서 순업과 순업 종사자를 각각 ‘곳’과 ‘곳쟁이’로 명명한 사건(events)은<sup>41)</sup>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사라진 유랑예인 활동의 계승으로서 영화 상영을 인식한 결과였다. 따라서 순업의 영화 상영은 근대 이전에 향유된 문화 수용의 단절과 연속성을 살피

사기사협회, 1993, 3면.

38) 위경혜, 「인천의 극장 문화 - 한국전쟁이후~1960년대를 중심으로 -」, 『한국극예술연구』 53집, 한국극예술학회, 2016, 44-88면.

39) 위경혜, 「한국전쟁 이후 극장 문화 로컬리티(locality): 강원도 도시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77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12, 543-581면.

40) 위경혜, 「한국전쟁이후 1960년대 비도시 지역 순회 영화 상영: 국민국가 형성과 영화산업의 발전」,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1권 제2호, 역사문화학회, 2008, 267-305면.

41) 위경혜, 「1950년대 ‘곳쟁이’ 이동영사 - 유랑예인 연행과 시각적 근대의 매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5권 제2호, 역사문화학회, 2012, 197-228면.

는 데 주요한 지표로 고려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기존의 한국영화사 서술 방식을 재고하도록 만든다. 즉, 근대 개화기 한국에 수입된 영화가 기존의 문화를 재현하거나 여타 인접한 문화 장르와의 협동을 통해서 제작의 역사를 시작한 바와 같이,<sup>42)</sup> 비도시 지역의 영화 상영과 관람 방식이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 토착적인(vernacular) 문화 전통과 견주어 비교된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이유로 근대 이전 사회의 문화 향유 방식과 근대 매체 영화가 만나는 현장을 중심으로 전개된 역사 서술은 제작을 넘어선 다양한 역사쓰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섯째, 구술사 방법론은 관객/지역민의 정체성을 서사화하고 일상생활 세계의 일부로서 극장의 장소적 의미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즉, 구술 증언은 상대적으로 공식적인 발언의 기회에서 소외된 자들의 삶을 객관화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구술자들은 해당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지(有志)를 일부 포함하지만 대부분 영화 상영 현장에 종사한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남성들이었다. 따라서 구술사는 구술자를 비롯해 그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고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었다. 또한 구술사는 지역민의 일상생활 세계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차지한 극장의 위상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이는 1960년대 비도시 관객/지역민이 극장을 ‘문화의 전당’으로 명명한 일이나 폐관 이후에도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킨 원주의 군인극장<sup>43)</sup> 그리고 호남선과 경부선

42) 임화, 「조선영화론」, 정재형 편저, 『한국 초창기의 영화이론』, 집문당, 1997, 106-115면.

43)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육군 1군단이 주둔한 원주의 경우, 북한과 접전 지역의 비도시와 달리 도심에 군인극장이 자리하였다. 1956년에 개관한 군인극장은 1980년대 폐관하였음에도 2010년대 초반까지 시내버스 노선표에 정류장으로 기재될 정도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이었다. 2008년 11월 17일 군인극장 자리에 원주시보건소가 신축·이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 원주시보건소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health/contents.do?key=1621>; 2018.2.6. 검색. 또한 일상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군인극장의 의미는 지역 영화 마니아의 구술 증언과 원주역사박물관이 지역민의 기억을 정리한 자료집을 통해 확인된다. 즉, 군인극장에서 원주 초등학교 졸업식을 거행하고 지역 방송국의 시민 대상 ‘가족노래자랑’을 개최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 원주역사박물관, 「먼지 쌓인 극장에 불을 켜다」, 원주역사박물관, 2017.

의 분기점으로서 전국을 연결한 대전역 인근의 극장 문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44)</sup>

여섯째, 구술사 방법론에 의거한 극장 문화에 대한 통찰은 영화학 연구의 학제 간 필요성을 적극 제고하도록 만든다.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는 영화사를 비롯한 도시사와 건축사 그리고 지역의 사회문화사를 연결하는 일종의 ‘경첩’으로서 위상을 지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극장 공간의 변화는 단순히 ‘관객의 욕망 분절’로서 해석될 수 없으며,<sup>45)</sup> 관객/지역민의 집단 무의식이 건물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투사된 결과로 보인다. 이는 한국 최초의 근대 극장으로 언급되는 인천 소재 애관극장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1950년대 중후반부터 인천 지역에 신설 극장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1960년 애관극장이 ‘신장개관을 단행한 일이 있었다. 이때 애관극장은 해당 도시를 포함하여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도록 극장 옥상에 전망대를 설치하였다. 이는 근대 문물을 도입하면서 항상 ‘최초’의 수식어를 부여받은 개항도시 인천의 자의식 표출이자 지역성의 일례를 보여준다.<sup>46)</sup> 또한 극장 건물에 대한 이해는 문화의 생산/재생산의 과정과 논리를 고려하도록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1935년 개관하여 2018년 현재까지 국내 유일의 단관 극장을 유지하는 광주광역시 광주극장의 경우를 볼 수 있다. 1968년 광주극장은 화재로 소실된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극장 내부의 무대 원형을 보존하고 건물 외관에 표석(標石)까지 다시 설치하였다. 이는 극장 공간에 ‘전통’의 문화 담론을 반영한 흥미로운 사례이다. 한편, 도시사적인 측면에서 전후 극장은

44) 위경혜, 「극장 문화의 지역성—한국전쟁 이후 대전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6권 제2호,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91-124면.

45) 미군정 지배가 종료된 1950년대 초중반 일본의 영화관은 극장 내부의 환기뿐만 아니라 방향(芳香)까지 고려하면서 극장 공간에 이전과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가토 미키로우 지음, 김승구 옮김, 『영화관과 관객의 문화사』, 소명출판, 2017, 209-210면.

46) 위경혜, 「인천의 극장 문화 - 한국전쟁이후~1960년대를 중심으로 -」, 『한국극예술연구』 제53집, 한국극예술학회, 2016, 44-88면.

근대화 지표이자 동시에 내부적으로 구획된 도시 공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이었다. 즉, 도시는 도심과 부도심 그리고 변두리 등 공간적 특성에 조응하여 등급별로 차등적인 극장(개봉관과 재개봉관 등)을 등장시켰고, 비도시는 해당 공동체의 공론 형성의 장소로서 의미를 더욱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술사 방법론에 의거한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는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자료의 발굴과 수집이라는 성과를 획득하는 데 기여한다. 전후 극장 문화 증언자의 대부분이 고령인 까닭에 면담과 구술 채록은 주로 그들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이뤄진다. 이러한 과정은 구술자의 소장 자료를 비롯해 산포(散布)하여 존재하는 극장 관련 자료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간혹 비서울/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진 영화 상영/관람 문화의 독자성을 제시하는 자료의 획득이라는 성과를 올리기도 한다. 전남 완도군 문화원에서 발굴한 가미시바이(かみしばい, 紙芝居)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sup>47)</sup> 이는 가미시바이의 실물 확인을 넘어서 한국전쟁 이후 전기 시설이 미비한 도서 지역의 영화 상영과 관람 방식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 4.2. 구술사 방법론을 통한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 과제

구술사 방법론에 의거한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 성과에 못지않은 연구 과제를 제출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 지역과 구술 채록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 지역은 이제까지 전후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 가운데 상대적으로

47) 가미시바이는 일제강점 말기 조선인 징병과 후방 안정을 목적으로 제작되어 전기 시설이 미비한 지역에서 행해진 것으로 '종이연극으로 불렸다. 가미시바이는 일종의 슬라이드 방식의 영화 상영 행위와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 위경혜, 『호남의 극장문화사: 영화 수용의 지역성』, 다할미디어, 2007, 160-168쪽.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부산의 경우 지역의 영화사를 개괄한 도서가 존재하지만,<sup>48)</sup> 해당 자료는 다수의 사진과 지역 영화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화적인 해석 및 통찰과 거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생활세계 경험의 일부로서 극장 문화를 형성한 지역민/관객의 문화적인 실천 양상에 대한 탐구가 요청된다. 부산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영화 산업의 ‘중심’으로서 서울의 지위를 대신하고, 전후 서울을 제외한 단일 도시로서 가장 많은 숫자의 극장을 보유했으며 이질적인 이력을 소유한 사회 구성원이 집중된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이자 ‘지방’ 도시인 부산의 극장 문화 연구는 도시/비도시/지역 간 역동적인 극장 문화의 지형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전후 극장 관련 종사자들이 거의 대부분 남성들로 구성된 사실에 비춰 극장을 포함한 흥행업계 종사자 또는 관객 가운데 여성 구술자의 증언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성 관객/지역민은 극장 운영과 흥행에 집중한 남성들보다 더욱 일상 생활세계와 밀접한 내용을 증언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극장 문화 구술 증언 채록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은 영화 상영 현장의 기술(技術)에 관련된 부분이다. 극장 문화의 지역성 연구의 일부로서 기술사-영사기와 스크린 그리고 음향 등 관련 구술 증언은 도시와 비도시 그리고 지역별 상영 방식과 관객성을 이해하는 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지역의 극장 문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구술 증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존하는 문제이다. 이는 구술 증언을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로 전환하기 위한 이론적인 방법의 모색과 더불어 비언어적 요소들의 해석 문제 등을 포함한다. 구술 자료는 ‘영구 보관되는 공공의 기록’이지 연구자의 사적 자산에 제한될 수 없다는 점에서<sup>49)</sup> 보존의

48) 홍영철, 『부산영화 100년』, 한국영화자료연구원, 2001.

49) 김성수, 「구술사(oral history) 방법론과 현대문학 연구의 새 지평」,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한국 문화문화과 구술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33면.

문제는 중요하다. 특히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개인 연구자의 구술 채록 자료를 공공재로 전환하는 작업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지방 생활문화로서 극장 문화사를 포함하는 아카이빙 (archiving)에 대한 고려와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구술 증언의 텍스트화를 넘어서 다양한 형식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구술은 ‘말하고’ ‘듣는’ 행위로서 구술자 자신의 삶에 대한 반추이자 면담자/연구자가 타인의 삶에 개입하는 순간이기도 하다.<sup>50)</sup> 따라서 구술사는 지난 세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과정을 통해 개인사에서 사회사로 인식의 폭을 확장시킨다. 하지만 구술 자료를 소논문과 같은 문자 텍스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술자의 미세하고 풍요로운 삶의 결을 담아낼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난다. 따라서 역사 문화적 실천의 주체인 구술자가 역사 서술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문자 텍스트를 넘어선 다른 ‘무엇’으로의 재현 방식을 탐구해야 한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해석하여 이론화하는 작업이다. 이는 전체사 가운데 차지하는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의 위상을 전후 역사적 국면과 사회사적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학제 간 연구를 요청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술사 방법론을 통한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는 영화사와 도시사 그리고 지역의 생활사를 아우르는 학제 간 연구의 대표적인 주제이다. 하지만 선행 연구가 특정 개인에 의해 집중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지역 극장 문화 연구는 자료의 발굴과 복원이라는 지난한 과정 때문에 연구자 개인의 열정과 헌신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50) 예를 들어 충남 부여군 부여극장 운영자 황재석(1935년생)의 구술은 일제강점과 해방 및 한국전쟁 그리고 1960년대를 거치면서 지배력을 달리한 영화를 비롯한 대중문화 장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연예계를 관통하면서 살아온 피지배 계층 남성의 생존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 위경혜, 「극장 문화의 지역성-한국전쟁 이후 대전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6권 제2호,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91-124면.

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학제 간 공동 연구의 수행과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기본 작업으로서 영화사와 극장사 연구 영역 간 협동이 요청된다. 극장 문화 연구는 극장이라는 공간과 장소를 둘러싼 일상성을 탐구하는 일이다. 이는 영화 텍스트의 미학과 해석이라는 작업과 ‘따로 또 같이’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구술사 방법론에 의거한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는 역사 서술의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 1960년대 한국영화사 서술이 현장 영화인의 구술에 바탕을 둔 『한국영화전사』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 전문성을 지향하는 연구자들의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거쳐 왔다면,<sup>51)</sup> 이제 구술사 방법론이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급진성을 적극 고려할 시기이다. 관객/지역민의 구술에 기반을 둔 역사 서술은 단순히 사실 발굴이나 문헌 자료의 보충/확증이 아니라 문화 생산과 향유의 주체로서 개인과 개인이 속한 사회 공동체 역사문화의 역동적인 양상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 5. 결론을 대신하며

특정의 연구 주제와 문제의식은 종종 연구자 개인사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 역시 학문적인 문제의식 출발에 앞서 연구자 개인을 둘러싼 일상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1995년 광주와 부산에서의 국제영화제 건설의 움직임을 들 수 있다.<sup>52)</sup> 하지만 당시 광주는 ‘광주비엔날레’의 조직과 정착에 여념이 없었고, 부산

51) 이순진, 「영화사 서술과 구술사방법론」,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한국 문화문학과 구술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112면.

52) 광주국제영화제는 신촌 문화공간 ‘우리마당’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광주부산 국제영화제 준비」, 『한겨레신문』, 1995.8.18.

은 학계를 중심으로 영화제 추진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었다.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영화제 개최는 제작 중심의 영화사에 대한 재고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지역의 영화 문화 향유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가운데 1998년 서울에서 멀티플렉스가 등장하면서 한국전쟁 이후 신설된 단관 극장은 휴폐관하면서 건물마저 사라져갔다.

일상생활 가운데 극장의 변화와 지역에 대하여 언급하는 이유는 구술사 방법론의 의의를 재론하기 위함이다. 구술사 방법론은 증언 채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술자와 ‘조우’하고 구술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시공간에 참여하는 일이다. 나아가 연구자는 ‘말하고 듣는 과정’에서 증언 수집가를 벗어나 여러 단계의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는 최종적으로 연구자 자신을 대상화하고 역사적 존재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만든다. 연구자의 위치성을 환기시키는 구술사는 기억에 기반을 둔 사실이자 사실의 재현이며 구술자와 연구자의 욕망이 동시에 발현되는 과정이자 결과이다. 요컨대, 극장 문화의 지역사(성) 연구에 있어서 구술사 방법론은 구술자 못지않게 연구자에게 역사적 존재로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어떻게’ 중심을 해체하고 복수의 역사를 재구성할 것인지 지속적인 물음을 던진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기제 편, 『한국연예대감』, 성영문화사, 1962.
- 국제영화사, 『1970 영화연예연감』, 국제영화사, 1969.
-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자료편람: 초창기~1976년』, 영화진흥공사, 1977,  
\_\_\_\_\_ 편, 『1977년 한국영화연감』, 영화진흥공사, 1978.
- 이영일, 『한국영화전사』(초판본), 한국영화인협회, 1969.  
\_\_\_\_\_, 『한국영화전사』(개정증보판), 소도, 2004.
- 주제사채록연구팀, 「2010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주제사> 1960~1970  
년대 영화관: 서울 개봉관을 중심으로」, 한국영상자료원, 2010.  
\_\_\_\_\_, 「2011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주제사> 대구 경  
북 지역 영화사」, 한국영상자료원, 2011.
- 한국영화사연구소 지음, 『한국영화를 말한다: 한국영화의 르네상스 3』, 한국영  
상자료원, 2007.

### 2. 단행본

- 가토 미키로우 지음, 김승구 옮김, 『영화관과 관객의 문화사』, 소명출판, 2017.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한국 문화문학과 구술사』, 동국대  
학교출판부, 2014.
- 역사문화학회 엮음, 『지방사연구입문』, 민속원, 2008.
- 위경혜, 『광주의 극장 문화사』, 도서출판다지리, 2005.  
\_\_\_\_\_, 『호남의 극장문화사: 영화 수용의 지역성』, 다할미디어, 2007.
- 유민영, 『한국 근대극장 변천사』, 태학사, 1998.
- 유춘동 외 15명, 『구술사 연구: 이 시대 주변인들을 기록하다』, 청송미디어, 2017.
- 윤택림 편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아르케, 2010.
- 윤택림·함한희, 『새로운 역사 쓰기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2006.
- 이순진, 『조선인 극장 단성사 1907-1939』, 한국영상자료원, 2011.
- 정재형 편저, 『한국 초창기의 영화이론』, 집문당, 1997, 109면.
- 조시돈·김건·이미경·김광희 공저, 『전북영화사』, 신아출판사, 2006.
- 탁 광, 『전북영화이면서』, 도서출판탐진, 1995.

한국영상자료원 엮음, 『은막의 사회문화사』, 한국영상자료원, 2017.

홍영철, 『부산영화 100년』, 한국영화자료연구원, 2001.

Kuhn, Annette, *An Everyday Magic: Cinema and Cultural Memory*, London: I.B. Tauris, 2002.

Maltby, R., Stokes, M. and Allen, R. C. (Eds.), *Going to the Movies: Hollywood and the Social Experience of Cinema*, Exeter: Univ. of Exeter Press, 2007.

Staiger, J., *Interpreting Film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3. 논문 및 기타

변재란, 「한국 영화사에서 여성 관객의 영화 관람 경험 연구: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서아귀 구술, 위경혜 면담, 「한국전쟁이후 1960년대 이동영사 활동 증언 자료 수집: 전라남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2009년도 구술자료수집사업 OH\_09\_019\_서아귀\_11』, 국사편찬위원회, 2009.

안재석, 「대구 경북 지역의 영화 배급사 연구」, 『현대영화연구』, 현대영화연구소, 2017.

원주역사박물관, 「먼지 쌓인 극장에 불을 켜다」, 원주역사박물관, 2017.

위경혜, 「한국전쟁이후 1960년대 비도시 지역 순회 영화 상영: 국민국가 형성과 영화산업의 발전」,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1권 제2호, 역사문화학회, 2008.

\_\_\_\_\_, 「1950년대 중반~1960년대 지방의 영화 상영과 ‘극장가기’ 경험」,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_\_\_\_\_, 「식민지 개항도시 극장의 장소성 -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72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10.

\_\_\_\_\_, 「한국전쟁 이후 극장 문화 로컬리티(locality): 강원도 도시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77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12.

\_\_\_\_\_, 「1950년대 ‘굿쟁이’ 이동영사 - 유랑예인 연행과 시각적 근대의 매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5권 제2호, 역사문화학회, 2012.

\_\_\_\_\_, 「군민(軍民) 협동과 영화 상영: 강원도 ‘군인극장」, 『대중서사연구』 제20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4.

\_\_\_\_\_, 「인천의 극장 문화: 한국전쟁이후~196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53집, 한국극예술학회, 2016.

\_\_\_\_\_, 「인천의 극장 문화 - 한국전쟁이후~1960년대를 중심으로 -」, 『한국극예술연구』 53집, 한국극예술학회, 2016.

- \_\_\_\_\_, 「극장 문화의 지역성—한국전쟁 이후 대전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6권 제2호,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 \_\_\_\_\_, 「1960년대 ‘지방 상설극장 개관의 역사성」,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20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17.
- \_\_\_\_\_, 「문화냉전의 지역성: 미공보원과 문화원」, 『2017년 인하대 한국학연구소·한국영상자료원<아시아재단과 한국의 냉전문화> 일반공동연구팀 심포지엄 “냉전 시대 ‘자유아시아의 문화/미디어 네트워크” 자료집』, 2017.
- 이기화 구술, 위경혜 면담, 「한국전쟁이후 1960년대 이동영사 활동 증언 자료 수집: 전라남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2009년도 구술자료수집사업 OH\_09\_019\_이기화\_11』, 국사편찬위원회, 2009.
- 이길성·이호걸·이우석, 「1970년대 서울의 극장산업 및 극장문화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4.
- 이순진, 「중심의 해체와 복원: 1950년대 대구지역 영화사를 중심으로」, 『2011년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연구소 심포지엄 “한국영화사연구와 로컬리티” 자료집』, 2011.
- 이지윤, 「1950년대 극장 공간 재편에 대한 일고찰: 극장 지정좌석제 논란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2권 제2호, 대중서사학회, 2016.
- \_\_\_\_\_, 「자본주의적 선진 문화공간으로서의 1950년대 극장 연구: 1950년대 중후반 서울 개봉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정종화, 「대구 지역 영화사: 1950년대를 중심으로」, 영상예술학회, 『영상예술연구』 1권, 2001.
- \_\_\_\_\_, 「한국영화 성장기의 토대에 대한 연구: 동란기 한국영화 제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함한희, 「구술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구술사연구』 창간호, 한국구술사학회, 2010.

Abstract

Research on the Cultural History of Movie Theater  
after the Korean War and the Use of Oral History  
as a Research Method

Wee Gyeonghae

This study reviews the usefulness and significance of using oral history as a method to conduct research on the cultural landscape of movie theaters in “non-Seoul areas” following the Korean War. Many studies on the history of Korean films have focused on film production and the aesthetics of individual movies; however, they fail to document the culture of embracing movies such as in the cultural landscape of movie theaters. However, cinema history has directed the focus of study toward movie theaters—where audiences encounter movies—by putting audiences at the center of the historical narrative. As a result, studies on the cultural history of movie theater started to be conducted in the mid-2000s as part of film studies. However, most of these focused on movie theaters in Seoul and employed empirical research methodologies that rely on written records, such as newspaper articles.

When it comes to studying the culture of movie theaters in areas outside of Seoul, researchers have been forced to rely on the oral testimony of those who were involved in theater management and movie-goers, as there are not many written records available about movie theaters in those areas. Oral history, as a research method for this field of study, made its contribution in discovering historical facts that were little-known to the public. In particular, the use of oral history is meaningful in that the method allows for the vivid description of the cultural landscape of movie theaters, the place where movies

are shown and where audiences watch movies. The method is also significant in that researchers can examine the culture of movie-goers—who embrace movies—as ordinary people living in non-Seoul areas.

This study defines the culture of movie theaters as an array of cultural practices adopted in places where movies are played and watched, and it outlines movie-goers'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of movie theaters. Researchers encounter many problems studying the cultural history of movie theaters in non-Seoul areas, when based on oral history; the most critical issue is the problem of the researcher's positionality. Oral history is the collaborative work of interviewees and interviewers and, therefore, the content of oral testimony hinges on the question of who is giving oral testimony to whom. In particular, the gender of interviewees and interviewers is of crucial importance because most film industry professionals, including those who work in movie theaters after the Korean War, are men. Furthermore, meticulous attention should be paid to “how” interviewees provide oral testimony, in addition to “what” is being told, because oral history is the product of remembering. In other words, the characters of the interviewees and interviewers play a key role in oral history. Oral history is useful in that history is re-created by the interviewees and interviewers.

Key Words : Audience/Local Residents, Cinema History, Cultural History of Movie Theater, Local History/Locality,  
Oral History

접수일: 2018년 2월 7일

심사기간: 2018년 2월 10일 - 2월 23일

게재결정: 2018년 3월 12일